

청소년 영재 학부모의 학업강조 경향과 영재의 상담에 대한 태도가 영재의 상담 의향에 미치는 영향

최민경

김세원

소정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영재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제 영재상담 프로그램의 구안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의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함으로써 영재 상담을 방해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영재 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 학부모의 학업강조 경향성,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 영재의 상담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영재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와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 태도 및 인식을 매개로 영재의 상담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 연구가 영재상담의 실제에 갖는 함의와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전문적 도움 추구, 서비스 갭, 영재의 사회·정서적 특징, 영재의 비합리적 신념,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영재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영재에 대한 사회·정서적 지지 및 상담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기능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 주도의 영재교육진흥 정책을 통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후,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신속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재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연구 측면에서 역시 수·과학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분석은 영재의 학습과 인지적 특성을 둘러싼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으나(하종덕, 문정화, 박지현,

교신저자: 최민경(mgychoi@gmail.com)

2000, 박경빈, 2012에서 재인용) 영재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영재가 가진 독특하고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영재의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실제로 미국영재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NAGC)는 영재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21세기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하위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재의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처럼 영재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데에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Moon, 2008).

이처럼 영재상담을 위한 여건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성희경, 한기순, 2011). 영재상담을 실제로 체험한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 상담 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실제로 상담이 발생한 빈도는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높은 만족도가 다음 상담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지 않아 영재 상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조한 상담요구가 영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게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영재 청소년은 청소년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더하여 영재성에 의한 특성까지 추가된다는 점에서 상담 필요성이나 심각성이 배가될 수 있다. 또한 상담 활용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홍혜영, 2006) 본인이나 자녀의 영재성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상담에 대한 기피를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영재상담의 실제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재상담을 방해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특히, 영재상담에서는 서비스 갭 또는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재 집단에서 나타나는 낮은 상담 요구가 그들에게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의 효과에 대한 지식 부족, 상담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원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영재들의 낮은 상담 요구에 대한 심층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재상담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재들의 실제 상담 신청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함으로써 영재학생과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과 상담 및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영재들의 상담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재상담의 실제에서 영재들의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요인과 촉진요인을 확인하고, 특히 이들 요인이 상담 신청 의향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영재상담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을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영재상담은 영재들이 그들의 특성으로 인해 독특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다각적인 도움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행해지는 활동이다(정순이, 2010). 즉, 영재상담은 영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며, 그 목표는 영재의 잠재력 발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Terman(1925)과 Hollingworth(1926)에 의해 영재의 특성과 이에 따른 심리 정서적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후 대학의 연구소(Colangelo & Pflieger, 1977)를 비롯한 학교 현장(St. Clair, 1989)에서의 영재상담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 그 범위와 연구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Colangelo, 2002). 국내에서는 최근에 영재의 심리적 특성(윤여홍, 2000; 송의열, 2002), 부적응(서우경, 2003), 미성취(정은이, 2002), 진로성숙(유순화, 윤경미, 강승희, 2006), 상담요구(성희경, 한기순, 2011)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론적으로나 임상적으로 관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윤여홍, 2000).

영재상담의 정당성은 영재의 독특한 심리·정서·성격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영재의 독특한 특성으로 내향성, 정서적 민감성 및 과흥분성, 완벽주의, 과도한 자기비판,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 다재다능함, 실존적 우울함, 비동시적 발달 등이 확인되었다(윤여홍, 2000; Silverman, 1993). 이러한 영재의 취약성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 즉 비동시성(asynchrony)과 과흥분성(overexcitabilities)이 제안되어 왔다. 비동시성은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속도에 있어 동시성의 부족으로 정의되며(Morelock, 1992),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영역의 비동시적 발달에 의해 영재는 일생에 걸쳐 비정상적인 감각, 인식, 정서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Dabrowski(1964)가 제안한 과흥분성(overexcitabilities)은 영재의 인지적 복잡성에 기인한 인지, 정서, 감각, 등의 강렬함이 영재의 정서적 예민함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에 대한 확인은 영재의 정서적 취약성(emotional vulnerability)과 그에 따른 사회·정서적 지지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의 원인이 되었다(허난설, 김유미, 2009). 즉, 영재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해 영재가 일반인과 구분되는 정서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허난설과 김유미(2009)는 영재의 사회·정서적 특징을 둘러싼 입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영재아들은 일반아에 비해 전반적인 적응 및 정서적 건강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영재아들은 선천적인 정서적 취약성 및 영재 특유의 정서적 경험으로 인해 일반아보다 정서적으로 취약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앞선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정리하는 입장으로 영재아의 정서적 적응 및 건강은 영재성 및 영재의 정서적 특성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보다 영재아를 둘러싼 환경 및 기타 개인적 속성들의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영재의 사회·정서적 특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오히려 특별한 요구(demand) 집단으로서의 영재의 독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영재성이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영재는 일반인과 구분

되는 다양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재성 및 영재의 다양한 개인·환경적 조건에 의해 다양한 특성이 추가적으로 매개될 수 있다면, 영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다. 특히, 영재의 미성취(under-achievement)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영재의 사회·정서적 측면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영재의 독특한 요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요컨대, 영재의 특성과 사회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재는 가족 내에서의 관계 및 역동, 학교환경과 적응, 정체성, 미성취, 도덕성, 신체적 건강 등에 있어 상담 요구를 나타내며(윤여홍, 2000; 유형근, 2009; 성희경, 한기순, 2011) 치료적 또는 발달적 접근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Colangelo, 1991).

최근 개발·보급되고 있는 다양한 영재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만족도 역시 적절한 지지의 제공 여부에 따라 영재아들의 발달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영재들은 성장과정에서 일반 아동 및 청소년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정서, 예컨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심리적 지지가 영재성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Bloom, 1985). 특히, 영재아를 위한 예방적 상담 프로그램은 영재아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윤여홍, 2000; 허난설, 김유미, 2009; Colangelo, 2002; Silverman, 1993).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해 줄 일차 양육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가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조석희, 2005). 이처럼 영재상담을 통한 중재는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소외, 우울, 미성취, 자아존중감의 훼손을 막고 영재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자아실현 과정을 촉진시킨다(Silverman, 1993).

II.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영재들의 전문적 도움 추구하고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영재의 상담의향을 설명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한다. 둘째, 청소년 영재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피요인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청소년 영재상담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 영재의 상담 의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그간 영재상담에서 영재들의 특수한 상담요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되어왔지만, 영재상담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문제를 통해 영재상담의 실제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영재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변인 구성

현재 영재상담과 관련한 논의는 영재에 대한 예방·발달적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

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김광수, 2001; 박정희, 2007; 허난설, 김유미, 2009), 영재 상담의 실제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영재 상담 프로그램이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상담에 대한 참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영재를 위한 각종 사회 정서적 지원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낮은 참여율이 영재들에 대한 상담의 무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할 때 영재들의 상담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재상담 연구에서 영재상담의 실제적 고려요인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일천하다. 특히, 얼마나 많은 영재들이 영재상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할 것인가, 즉 상담의향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들의 상담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영재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gifted youths'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2)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gifted youths' surrounding attitude and awareness toward consultation), (3)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gifted youths' emphasis on academics), 그리고 (4)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parental emphasis on academics)의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각 요인이 영재의 상담의향(gifted youths' intention toward consultation)에 미치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 전문적 도움 추구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리·정신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타인과 상의하기보다는 자기조절을 통해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친구 또는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선혜, 2007). 비록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는데(Deane & Todd, 1996), Greenly와 Mechanic(1975)은 상담요청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상담과 심리치료와 같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민지, 손은정, 2007).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불편감(장영임, 1999), 사회적 지지(Sherbourne, 1988), 경쟁적이며 성취적인 성향(유성경, 이동혁, 2000), 낙인과 자존감 등이 있다. 상담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상담에 들일 수 있는 시간과 돈 같은 외부환경 변인(Cepeda-Benito & Short, 1998)도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이 있다.

전문적 도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이라고 하는데(Brinson & Kottler, 1995; Kushner & Sher, 1991), 이는 심리치료가 보편화된 서구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신현희, 안현의, 2005). 심리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의 결과가 위험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결과가 존재함에도, 상담서비스는 도움요청 과정에서 마지막 고려대상이 된다(이상균, 2000; 장미경, 2012; Andrews, Issakidis, Carter, 2001).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전문적 도움추구 및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의향과의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 영재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영재의 상담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와는 구분되는 요인으로 상담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 및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개인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경향성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라고 한다면, 심리적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이나 인상, 그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구분될 수 있다. 전문적인 도움에 대한 요청 여부뿐만 아니라 상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담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상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실제로 상담 신청에 얼마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저조한 상담을 자체의 문제는 심리 상담 영역 일반에서 만연한 현상이다(홍혜영, 2006).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기는 다양한 발달특성상 그 어느 시기보다 심각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여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Offer, Howard, Schoert, Ostrov, 1991; 홍혜영,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일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 상담에 있어 저조한 상담율은 만연한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소년 집단에서 자주 확인되는 상담에 대한 저항은 상담의 기능이나 효과 및 내담자의 역할에 대한 무지, 비밀보장에 대한 의심, 타인은 자신의 문제를 도울 수 없다는 회의감, 가족 및 친구들이면 문제해결에 충분하다는 믿음 등이 상담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홍혜영, 2006).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과 상담 의향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은 영재의 상담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전문적 도움 추구는 상담 서비스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의 일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가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학업 강조 경향

LG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대들은 전체 연령층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학업이 83%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업과 대학입시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며, 이것이 영재 청소년들에게는 부모, 학교, 사회로부터 더 많은 경쟁과 성취를 요구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업의 강조 및 이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여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이나 요구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역설적으로 상담의향이나 신청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은 영재가 가진 비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 있다. Eliss(1995)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비합리적 신념으로서 11가지 특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정욕구(demand for approval)는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1977). 인정욕구는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영재 본인 역시 영재성에 대해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 있는데, 예컨대, 영재성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실패와 좌절에 더욱 취약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또래 등 주변의 높은 기대는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성희경과 한기순(2011)의 연구는 이러한 영재들의 인정 욕구를 보고하였다. 영재아동이 인식하는 상담요구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범주별로 구분한 결과, ‘성공 및 인정욕구에 따른 상담요구’가 나타났다. 즉, 영재는 높은 자아개념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걸고 있는 기대에도 민감하여 이에 부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른바 우수아 신드롬(superkid syndrome)이 높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에 대한 기대와 주변으로부터의 기대가 높은 영재는 일반아에 비해 인정욕구가 높을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기에 학업을 강조함으로써 본인과 주변, 특히 학부모의 높은 기대에 보답하고자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는 영재들은 학업 외 활동을 학업을 방해하는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상담 역시 학업을 방해하는 활동 중 하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상담이 학업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담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 등을 학업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 역시 영재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부모의 역할 중 하나는 아이의 재능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를 촉진시킬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그러나 윤여홍(2000)은 부모의 교육열망과 성취기대가 자녀의 재능과 무관하거나, 자녀의 성공을 통한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경우, 부모-자녀 관계는 힘겨루기, 자아정체감의 혼란, 수동-공격적, 미성취 현상으로 나타나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외적 기대는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해 영재의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의 필요성이나 요구를 낳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학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나 자녀의 영재성에 대한 과도한 신념을 가지는 경우, 영재 자녀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과소평가될뿐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상담신청 의향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보면, 영재가 가치관을 형성할 때에 학업 관련 이슈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청소년기에 있는 영재들의 경우, 학업 관련 이슈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가 특정 활동을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재 본인의 학업 강조 경향성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이 영재의 상담신청의 향 및 관련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업 강조 경향성이 상담신청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재가 지각하는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을 측정함으로써, 영재 자녀 스스로가 느끼는 내 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가설 4: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영재의 상담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영재의 상담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구조방정식 모형 구성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전문적 도움 추구 과정을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Gross와 McMullen(1983) 그리고 Kusner와 Sher(1991)는 전문적 도움추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제안하였다(신정아, 박현순, 2010에서 재인용). 아울러 도움 추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특정한 도움을 받을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안현의, 신연희, 2005). 영재 본인 및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은 도움(상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상담에 대한 태도는 다시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영재 및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을 외생변수로,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내생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참가자 및 측정 방법

한국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2010년부터 창의적 발명 인재 발굴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바탕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잠재적 창업가(potential entrepreneur) 및 기업영재(기업영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민경, 이경표, 2013; 최민경, 이행은, 2013을 참조할 것) 육성을 통해 미래 한국의 경제적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다단계 선발방식을 적용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캠프 전형, 3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은 특허청에서 육성하는 발명인재 피라미드에서 최상위를 점하는 학생들로서 발명에 필요한 창의인성 및 창의 사고력뿐만 아니라 차세대영재기업인(이찬, 2009)으로서의 독특한 인재상에 근거한 네 가지 핵심역량(영재성 역량, 지식재

산전문성 역량, 학습 역량, 기업가 역량)을 고루 갖춘 것으로 간주되었다.

본 연구는 제 3회 및 제 4회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대상으로 최종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186명이 본 연구 설문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오프라인 캠프 기간을 활용하여 집단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윤리적 지침을 따르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캠프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여부에 따라 설문에 참여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의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문항의 50% 미만을 반응한 참가자는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여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14명).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인원의 연령 및 학교급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참가자 인원 및 연령 평균(괄호는 표준편차)

	참가자		합계
	남학생	여학생	
인원수(명)	113	59	172(169)
연령 평균(세)	15.04(1.12)	15.03(1.02)	15.04(1.08)

2. 측정 도구

영재의 상담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에 표준화된 척도 및 설문지들을 참조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요인들에 대한 표준화된 척도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에 타당화된 척도가 개발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인의 측정을 위해서 각종 연구 문헌에 제시된 이론적 내용을 참고하여, 세 명의 연구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직접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하나의 진술문 형태로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각 진술문에 동의하는 만큼 아주 동의하면 5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1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5점 리커트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총 설문 문항은 12문항이었고, 설문 문항 제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

Fisher와 Turner(1970)가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Scale)를 개발하였고, 이후 Fischer와 Farina(1995, 남숙경, 2010에서 재인용)가 이를 수정하여 10문항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본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문화적 맥락과 타당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숙경(2010)은 Fischer와 Farina(1995)의 10문항 단축형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두 차원의 요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상담에 대한 긍정태도와 필요성’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요인

은 ‘상담에 대한 부정태도와 불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숙경(2010)의 10 문항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문항들은 예컨대, ‘사람이 가진 고민은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평소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숙경의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Chronbach's α)는 .713였다.

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영재가 상담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홍혜영(2006)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홍혜영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상담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 실시 결과를 유목화하여 문장으로 나타내었다. 예컨대, 홍혜영의 연구에서 ‘상담실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 유목으로 불쾌감과 호기심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를 참고로 ‘나는 상담실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불쾌감(호기심)이 들 것 같다’라는 문항을 만드는 식으로 적용하였다.

다. 학업 강조 경향성

학업 강조 경향성 척도 역시 기존에 개발된 척도 중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척도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직접 문항을 개발하였다. OECD 회원국 청소년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상위 수준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학업 성취 결과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을 분석할 때 학업을 강조하는 교육시스템과 부모(주로 어머니)의 과도한 교육열을 그 원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화순(2003)은 부모의 대화내용(특히 학교공부관련 대화)을 의미하는 가정의 사회 심리적 배경이 학업 성취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고, 스웨덴의 주요 일간지 스펠스카 더그블라텐(2013)은 한국 교육의 본질은 어머니들의 압력에 의해 기인하며, 이러한 높은 학업 성취 이면에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여유를 없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예컨대, 한국사회 특유의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바탕으로, 부모 및 영재아 본인의 학업 강조는 청소년기에 직면하는 다른 삶의 영역들(예, 정의적 영역)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학업강조 경향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 측정되었는데, 학부모의 학업강조 경향성은 영재 본인이 인식하는 부모님의 학업강조 경향성이다. 예컨대, “나의 주 양육자는 내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반면, 영재의 학업강조 경향성은 예컨대, “나는 내 삶의 요소들 중 학업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라. 상담 의향

중속변인이었던 상담의향 요인의 문항을 개발할 때 한 가지 주의한 점은 문항에서 측정하

1) 2012년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위를 차지함.

는 ‘상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일이었다. 즉, 본 연구 참가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의 명칭(차세대영재기업인 상담·코칭)을 적시함으로써 특정 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상담 일반에 대한 태도와 구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상담을 신청하는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함으로써 상담 의향을 단순히 상담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와 구분하였다. 예컨대, “다음 달에 상담 공지가 뜨면, 나는 상담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질문함으로써 상담을 신청하는 행동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오류 검토과정을 거친 후 Mplus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2단계 접근(two steps approach, Anderson & Gerbling, 1988)을 사용하였다. 즉,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먼저 실시한 후, 두 번째 단계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로서 사토라-벤틀러(S-B) χ^2 ,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제시하였고, 충분적합지수로서 터커-루이스 지수(Tucker-Lewis index, TLI),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구하였다(노형진, 2011). 모형의 구조 경로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로버스트 최대우도법(robust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채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측정도구의 적합도 검증

우선, 측정도구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구성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를 산출하였고, 척도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AVE 제곱근과 비교하였다.

측정도구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잠재변인이 보통 혹은 높은 수렴타당도를 나타내었다. Hair 외(2006)의 기준에 따르면, AVE는 .5, CR은 .7보다 높을 것이 권고되는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재의 학업강조와 전문적 도움추구의 두 개 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두 개의 변인 역시 기준에 거의 부합하는 수치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무리없는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 계수 역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측정도구의 (S-B) χ^2 값은 71.636으로 대체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었고, RMSEA 역시 .60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90% CI: .33~.85). TLI는 .927, TLI의 단점을 보완한

<표 2> 요인 간 상관계수 및 요인 별 평균·표준편차

구성 개념	문항	Std. Coef.	AVE	CR
학부모 학업 강조	나의 주양육자*는 현재 내 삶의 요소들 중 학업성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849	.604	.820
	나의 주양육자는 내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야 내가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735		
	나의 주양육자는 내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야 내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743		
영재 학업 강조	나는 현재 내 삶의 요소들 중 학업성취가 가장 중요하다.	.660	.476	.645
	나의 학업성취는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719		
전문적 도움 추구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548	.417	.584
	자신의 고민을 상담 선생님과 의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731		
상담 태도 및 인식	상담실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불쾌감이 들것 같다.	.770	.647	.846
	상담실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수치심이 들 것 같다.	.815		
	상담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827		
상담 의향	나는 앞으로 꾸준히 차세대영재기업인 상담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	.980	.657	.784
	다음 달에 상담 공지가 뜨면, 나는 차세대영재기업인 상담을 신청할 것이다.	.595		

*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에서는 ‘학부모’를 ‘주양육자’로 표현함으로써,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라도 본 연구에 참가한 영재를 주로 돌봐주면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학부모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표 3> 적합도 수치

	(S-B) χ^2	df	p	RMSEA	TLI	CFI
도구 적합도	71.636	44	< .05	.060	.927	.951
모형 적합도	87.532	45	< .05	.068	.908	.932

<표 4> 측정도구 적합도

	1	2	3	4	5
1.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	(.777)				
2.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	.500	(.690)			
3.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369	-.213	(.646)		
4. 영재의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	-.197	-.248	.654	(.804)	
5. 영재의 상담 의향	.039	-.036	.540	.430	(.811)

CFI는 .951로 모형의 조건을 만족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AVE 제공근 간의 비교를 통해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검증할 수 있다. 모든 AVE 제공근(대각선에 괄호로 표

시)는 모든 상관계수보다 커야 하지만, 이는 가장 변별타당도를 검증하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단 하나의 수치만이 이 기준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벗어나는 것으로 볼 때, 도구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낸다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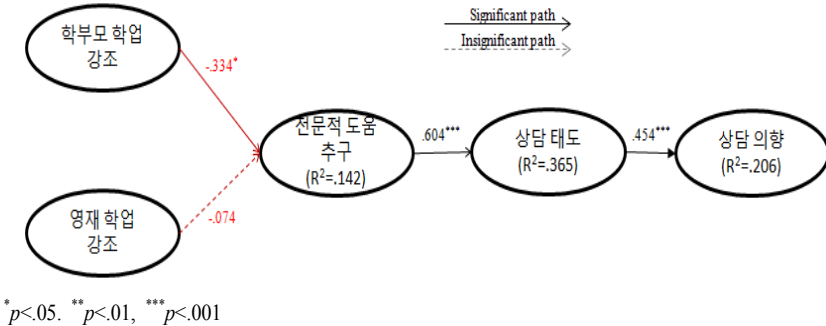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았다. 모형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S-B) χ^2 와 RMSEA에 의해 우선적으로 평가되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S-B) χ^2 값은 87.532로 대체로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RMSEA 역시 .068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90% CI: .044~.090). TLI는 .908, TLI의 단점을 보완한 CFI는 .932로 모형의 조건을 만족하였다.

나. 구조방정식 모형 경로의 유효성 검증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속의 각 경로(path)가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별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β)를 산출하였다. 그 값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상담 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로는 상담에 대한 태도($\beta=.454$)이었다. 상담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로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beta=.604$)이었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학부모 학업 강조($\beta=-.334$)이었고,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대한 유효한 예측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의 상담 의향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담 의향의 21%를 설명하였다.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의 37%를 설명하였다.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

는 요인은 학부모의 학업 강조뿐이었고, 이는 14%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를 매개하여 상담의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이 상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V. 논 의

본 연구는 영재의 상담 의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영재의 상담 의향을 방해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영재의 상담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영재가 가지는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 확인되었다. 즉,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상담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가설 2, 즉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은 상담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이는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막연한 인상이 영재의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재를 대상으로 기획된 상담 서비스가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재가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막연하고 부정적인 오해를 확인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가 확인되었다. 이는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로써 가설 3이 채택되었다. 즉, 상담이라는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인상에는 전문가에 대한 도움 추구 경향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재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태도 개선을 위해서는 영재 상담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 이러한 전문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혜자, 즉 영재와 영재 학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 요인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상담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가설 1, 즉,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는 상담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시 채택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적인 상담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상담 서비스의 수혜 여부를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재상담 이용률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재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뿐이었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설 4, 즉,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영재상담에 있어서 함의하는 바는 크다. 이 결과는 영재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즉, 영재들은 자신의 학부모가 자신에게 학업에 보다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느낄수록, 학업 외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가를 찾는 경향이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 영재들은 자신의 내적 경향성보다 자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학업을 강조한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영재와 영재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영재가 인식하고 있는 바에 대한 영재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영재는 영재학부모에 대해 학업만을 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점을 영재 학부모 스스로가 지각하고, 대화를 통해 이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영재상담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녀가 영재이든 혹은 영재가 아니든 대한민국의 학부모로서 자녀의 학업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열망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영재 상담에서도 학부모의 영재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영재 상담에 있어 학부모에 대한 지원 역시 간과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다.

VI. 종합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재상담의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실제 장면에서 영재 상담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사업’에 참가하는 중·고등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학생들은 발명 및 기업가정신 영역에서 영재성을 발휘하는 학생들이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의 상담 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변인은 상담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이었다. 이때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은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상담 의향 사이를 매개하였다.

둘째, 영재의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영재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이었다. 영재의 학업 강조 경향성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영재가 인식한 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르면 영재 학부모의 학업에 대한 강조는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와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재의 상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재상담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영재상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영재상담의 효과성을 배가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을 실시하여 학부모, 영재 본인, 그리고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상담에 대한 상식 수준을 꾸준히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라야만 상담 서비스의 효과가 비로소 증폭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표본의 제한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가 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재 하위 영역에 있어서도 발명 및 기업가정신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영재 일반에 확장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스스로가 판단하는 상담 필요성에 대한 측정이 누락되어 있다. 향후 스스로가 판단하는 상담 필요성을 측정할 수 있다면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 의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영재청소년의 상담신청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향후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이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연구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없었다. 향후 변인 및 측정도구의 개선을 통한 보다 발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영재 청소년의 상담 의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영재학부모의 학업 강조 경향성과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상담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을 제안하였고,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겠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영재의 상담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을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한 변인들이 영재의 상담의향에 미치는 영향 및 그들 간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도를 기반으로 영재의 상담 의향에 보다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향후 탐색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재상담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즉, 영재상담의 필요성이 밝혀지고, 영재상담의 특수한 요구를 확인하여, 영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보다 효과적인 영재상담의 실행을 위한 방법을 구안하는 것으로 연구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수 (2001).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한국청소년상담원(편),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개발론 (pp. 63-145).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남숙경 (2010).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의 구인타당도 재점검. **상담학연구**, 11(3), 1007-1020.
- 노형진 (2011). **Amos로 배우는 구조방정식모형**. 파주: 학현사.

- 박경빈 (2012). 한국영재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22(4), 823-840.
- 박형진, 김경식 (2007). 학업성취의 영향 요인 분석. **교육학논총**, 28(1), 49-66.
- 박정희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학급 단위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서우경 (2003). 부적응 영재아 상담에 대한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2(2), 65-86.
- 성희경, 한기순 (2011). 영재의 고민과 상담요구에 대한 개념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18(9), 309-336.
- 송의열 (2002). 영재 아동의 사회 정서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이해. **영재와 영재교육**, 1(2), 69-95.
- 신정이, 박훈순 (2010).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전문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낙인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31-256.
- 신연희, 안현희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 55-68.
- 유순화, 윤경미, 강승희 (2006). 과학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상담학연구**, 7(2), 399-415.
- 유형근 (2009). 미성취 영재의 상담요구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2(1), 113-129.
- 윤여홍 (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1), 79-101.
-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96.
- 이상균 (2000). 청소년 도움요청행위와 그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53-175.
- 이선혜 (2007). 한국인의 정신건강 도움요청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122-151.
- 이영주, 류지영, 채유정 (2012). 과학영재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상담 실태분석. **영재교육연구**, 22(2), 411-426.
- 이찬 (2009). **차세대 영재기업인 선발모형 개발 및 육성체계 구축**. 서울: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장미경 (2012). 청소년의 상담추구행동과 사회적지지망의 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93-208.
- 장영임 (1999). 문제의 심각도 및 사회적지지,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상담요청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정순이 (2010). **영재상담모형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정은이 (2002). 미성취 영재에 대한 또래 상담의 전략적 개입. *교육방법연구*, 14(1), 35-63.
- 조석희 (2005). **영재성의 발달 및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중단연구(2004-2018): 2차년도(조사대상자 선정 및 횡단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 (2013). **한국 교육 본질은 엄마의 압력**.
- 최민경, 이정표 (2013). 기업영재 중단연구의 이론적 제안 및 고찰. *영재교육연구*, 23(5), 793-815.
- 최민경, 이행은 (2013). 청소년 기업영재의 기질 및 성격 특성. *영재교육연구*, 23(1), 89-107.
- 허난설, 김유미 (2009). 영재아의 정서안정을 위한 통합적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교육*, 36(2), 75-91.
- 홍혜영 (2006).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7(4), 1203-1219.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drews, G., Issakidis, C., & Catter, G. (2001). Shortfall in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5), 417-425.
- Bloom, B. S.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Y: Ballantine Books.
- Brinson, K. A., & Kottler, J. A. (1995). Minorities' underutilization of counseling centers' mental health services: A case for outreach and consul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 371-385.
- Ca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58-64.
- Colangelo, N. (1991). Counseling gifted students,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273-284). Boston: Allyn & Bacon.
- Colangelo, N. (2002). *Counseling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Storrs, CT: 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National Research on the Gifted and Talented.
- Colangelo, N., & Pflieger, L. R. (1977). A model counseling laboratory for the gifted ar wisconsin. *Gifted Child Quarterly*, 21, 321-325.
- Dabrowski, K. (1964). *Positive disintegration*. Boston: Little Brown.
- Deane, F. P., & Todd, D. M. (1996). Attitud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for personal problems or suicidal think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0, 45-59.
- Eliss, A. (1995). Thinking processes involved in irrational beliefs and their disturbed consequence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9, 105-116.
- Fornell, C., & Larcker, D.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reenley, J. R., & Mechanic, D. (1976). Social selection in seeking help for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7(3), 249-262.
- Hair, J., Black, W., Babin, B., & Anderson, R.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Hollingworth, L. S. (1926). *Gifted children: Their nature and nurture*. New York: Macmillan.
-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relations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 196-203.
- LG경제연구원 (2013). 한국 소비자들의 7가지 라이프스타일.
- Moon, S. M. (2008). 사회적, 정서적 문제, 미성취, 상담 [문은식, 송의열, 최지영, 송영명, 역]. 서울: 학지사. (원본출간년도: 2004)
- Morelock, M. J. (1992). Giftedness: The view from within. *Understanding Our Gifted*, 4(3), 1, 11-15.
- Nelson, R. E. (1977). Irrational beliefs in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190-191.
- Piechowski, M. M. (1991).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giftedness.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285-306). Boston: Allyn & Bacon.
- Sherbourne, C. D. (1988).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life stress in use of uti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1, 167-178.
- Silverman, L. K. (1993). Counseling needs and programs for the gifted. In K. A. Hellen,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631-647). Oxford, UK: Pergamon Press.
- Silverman, L. K. (2008). The measurement of giftedness. In L. V. Shavinina (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Giftedness* (pp. 947-970).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St. Clair, K. L. (1989). Counseling gifted students: A historical review. *Roeper Review*, 12(2), 98-102.
- Terman, L. M. (1925).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ume 1*.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The Influences of Gifted Youths' Intentions Toward Counseling: Parental Emphasis on Academics and Surrounding Attitudes for Consultation

MinGyeong Choi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SaeWon Kim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Jung So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While the importance of needs and effectiveness of counseling for the gifted and talented has been actively studied, factors that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have to consider in designing counseling programs less have been studied.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counseling for the gifted and talented research by investigating factors which impede gifted youths' intentions toward counseling and by suggesting structural model which explain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ental emphasis on academics, personal emphasis on academics,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surrounding attitudes for consultation on gifted youths' intentions. The result shows that the effects of parental emphasis to academics on gifted youths' intentions toward counseling are mediated by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nd surrounding attitudes for consultation.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Counseling of gifted and talented, Help-seeking attitud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Irrational beliefs, Soci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gifted you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차 원고접수: 2013년 11월 29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12월 30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12월 30일